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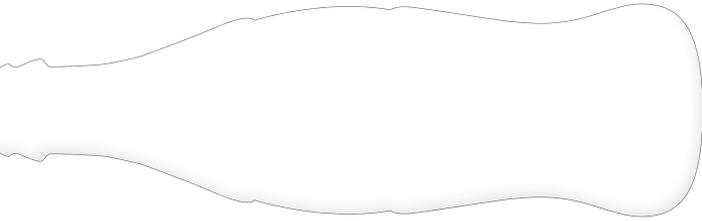
코카-콜라 음료(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92번지 LG광화문빌딩
한국 코카-콜라(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흥국생명빌딩 10층

WE SEE
OUR 
POTENTIAL

미래를 여는 가능성
2012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2012 Coca-Cola Korea Environment Report

Contents



- 02 목차 /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 04 CEO 메시지
- 06 코카-콜라 시스템 개요 / History
- 08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 전략
- 10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 정책 소개

코카-콜라의 환경 경영

- 15 환경안전보건방침
- 16 환경목표 / 환경경영시스템
- 18 환경 사고 대응 체계 / 환경성과평가
- 20 환경경영심사

수자원 보호와 재활용

- 25 응수관리
- 26 수질오염물질 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
- 28 폐기물 관리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 빈용기 보증금 제도

에너지 관리 및 기후 변화 방지 활동

- 33 온실가스 관리 체계
- 34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 온실가스 배출량
- 36 온실가스 감축 실적
- 38 녹색구매 / 탄소성적표지

환경 보전 및 지역 사회 환경 개선

- 43 휘오 순수 그린패키징 공모전 은상 수상
- 44 코카-콜라의 환경 캠페인
- 46 기고문-남극탐험 / PlantBottle
- 50 지역환경 개선활동 / 용어정의



2012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2012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는 코카-콜라 시스템이 추진해온 환경 관련 정책과 환경, 안전,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 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의 정보를 고객과 지역 사회, NGO, 정부기관 등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코카-콜라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환경부의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 라인(개정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카-콜라 시스템의 각 사업장, 특히 여주, 양산, 광주사업장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해온 활동 현황과 성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관련 데이터는 추이 비교를 위해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는 코카-콜라 브랜드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해태음료(주), (주)한국음료, 다이아몬드샘물(주)의 환경경영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Contact Us

본 보고서에 대한 조언이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을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다음 보고서 발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코카-콜라 음료(주), 해태음료(주), (주)한국음료, 다이아몬드샘물(주)
HES팀 김종석 파트장 031-8045-1534
jongseok.kim@cckb.co.kr

• 한국 코카-콜라(유) 홍보부 구남주 부장 02-3271-3072
nkoo@coca-cola.com

※ 본 환경보고서는 FSC인증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 인쇄를 사용하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와 행복한 상생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코카-콜라(유) 대표이사 이창엽

코카-콜라사가 음료 사업 하나로 지난 126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상생'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음료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 사회가 건강하고 번영해야 코카-콜라의 비즈니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환경은 코카-콜라사가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전 세계 소비자들의 행복한 갈증 해소를 돕는 음료 회사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연과 지역 사회와 함께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코카-콜라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 경영의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카-콜라사는 '물 보호', '에너지 기후 보호', '지속 가능 용기 개발 및 재활용'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글로벌 목표를 설정하고 많은 기술혁신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 최초의 쿠폰, 사물로서는 처음으로 타임지 커버를 장식한 캔투어병, 산타클로스, 폴라베어 등 수많은 마케팅 신화를 만들어왔고, 음료 용기 개발에도 많은 혁신과 편리함을 선보여 왔습니다. 이제 코카-콜라사의 혁신은 미래를 위한 친환경 포장 용기 개발을 향해 한 걸음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선보이는 플랜트보틀(PlantBottle™)은 30% 가장 식물성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 감소를 유도하는 친환경 PET 용기로서 '지속 가능한 용기 개발' 노력의 산물입니다. 플랜트보틀은 단순히 코카-콜라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료 업계에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혁신의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 6번째 발행되는 '2012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는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코카-콜라사가 어떠한 환경적인 노력과 활동을 전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코카-콜라사의 의지의 표명이자 약속입니다. 코카-콜라는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와 행복한 상생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탄소 녹색경영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주) 사업부장 배정태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이 기운을 받아 코카-콜라 음료(주)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코카-콜라 음료(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새롭게 한가족이 된 해태음료(주)의 사업체질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개선활동을 가속화하여 코카-콜라가 국내 음료시장에서 1등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코카-콜라 음료(주)는 저탄소 녹색경영을 실행하는 최고의 회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저탄소 녹색경영 리더십 확보'입니다. 코카-콜라 음료(주)는 저탄소 녹색경영을 구현하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 및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기술을 적용한 대표 제품인 '휘오 순수'는 2011년 12월, 환경부와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이 주최한 제1회 그린패키징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 500ml 페트병 제품은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2009년 국내 최초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또한 올해 3월에는 국내 음료업계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녹색경영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탄소 녹색경영 관리체제 수립을 위해 2020년까지 그린경영 목표수립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및 물 사용에 대한 중장기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였으며, 환경부와 체결한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 변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과 글로벌 코카-콜라사의 환경경영인증(KORE), 환경부의 녹색기업 인증을 통해 사업장의 저탄소 녹색경영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체결한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녹색제품 구매가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경영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환경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Earth Hour, ICC(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1사1하천 등의 기존에 진행하던 환경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주)는 이번 '2012 코카-콜라 환경보고서'가 그동안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경영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개요

코카-콜라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상쾌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하고 독특한 마케팅과 현지화된 전략을 펼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의 시스템은 원액 제공 및 브랜드 관리를 책임지는 코카-콜라사와 안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 등 영업을 책임지는 현지의 보틀링 회사로 역할을 분담, 양사의 긴밀한 협조 아래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틀러(Bottler)'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틀러들은 공장과 운송수단 등 현지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투자를 담당하며, 현지 사정에 맞는 제품 믹스와 유통 전략을 구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코카-콜라 조직은 코카-콜라 음료(주) (Coca-Cola Beverage Company)와 한국 코카-콜라(유)(Coca-Cola Korea Company)라는 2개의 독립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대표하는 한국 코카-콜라(유)는 원액 제조 및 상표 보호, 브랜드 관리 및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고, 코카-콜라 음료(주)는 국내 코카-콜라 제품의 생산, 유통 및 고객지원 활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주)는 1997년 두산음료, 우성식품, 호남식품 등 지역별로 존재했던 보틀러들을 통합하여 설립된 보틀링 파트너(Bottling Partner)로, 2007년 10월 국내 최고의 소비자 마케팅 회사인 LG생활건강의 가족이 되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대 초 미국에 의해 도입되어 국내에 첫 선을 보이게 되었고, 첫 번째 보틀링 파트너였던 한양식품이 1968년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40년간 코카-콜라의 상쾌한 맛은 국내 소비자들의 변치 않는 기호 음료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코카-콜라 시스템은 코카-콜라 이외에도 환타, 스프라이트 등의 탄산음료와 스포츠 음료 파워에이드, 미닛메이드 주스, 먹는 샘물 휘오 순수, 조지아 커피 등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음료들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한국 음료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 음료인 글라스 비타민워터를 출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다양한 음료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상쾌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하고 독특한 마케팅과 현지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여주, 양산, 광주, 남원, 철원, 천안, 평창에 생산시설을 운영, 전국 단일유통망으로 신속히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주) 매출 현황

(2011년 12월 기준 / 단위: 백만 원)

제 15기	2010년 1월 1일 ~ 12월 31일	700,520
제 16기	2011년 1월 1일 ~ 12월 31일	836,763



생산 제품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코카-콜라 라이트, 환타, 파워에이드, 미닛메이드, 휘오 순수, 맑은기운차, 조지아 커피, 써니텐 스파클링 에이드, 번 인텐스, 퓨스티, 스프라이트, 쿠우, 글라스 비타민워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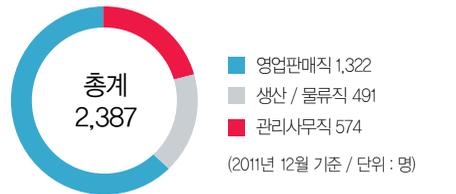


History

- 1950 6.25 한국전쟁 때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됨
- 1968 한양식품에서 처음으로 코카-콜라 국내 생산 및 판매
- 1974 **한국 코카-콜라(주) 창립**
- 1980 국내 음료시장 최초로 캔 패키지 도입(코카-콜라)
- 1982 국내 음료시장 최초로 테트라 팩 도입(하이-C)
- 1983 국내 음료시장 최초로 PET 패키지 도입(코카-콜라)
- 1993 두산음료에서 한양식품 인수,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코카-콜라 생산 및 판매
- 1996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 설립**
- 1997 우성식품, 호남식품, 두산음료 인수
- 1998 코카-콜라 아마틸에서 코카-콜라사로부터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 인수
전국 단일 보틀링 시스템 구축
- 2000. 12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여주)
- 2001. 06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양산, 광주)
- 2004. 02 여주공장 경기환경그린대상 수상(수질보전 유공)
- 2006. 06 **환경부장관상 수상(환경보전공로)**
- 2007. 06 국내 음료업계 최초 환경보고서 발간
- 2007. 10 (주)LG생활건강에서 코카-콜라 아마틸로부터 코카-콜라 음료(주) 인수
- 2008. 07 탄소성적표지 시범사업 참여(코카-콜라 500ml 페트병)
- 2008. 11 환경친화기업 인증(광주)
- 2008. 11 **양산공장 환경부장관상 수상(폐기물 감량 유공)**
- 2009. 06 환경친화기업 인증(여주)
- 2009. 10 다이아몬드샘물(주) 인수
- 2009. 12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 2010. 03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2010. 04 (주)한국음료 인수
- 2010. 05 저탄소상품 시범인증사업 참여(코카-콜라 500ml 페트병)
- 2010. 09 **여주공장 환경부장관상 수상(폐기물 감량 유공)**
- 2011. 01 해태음료(주)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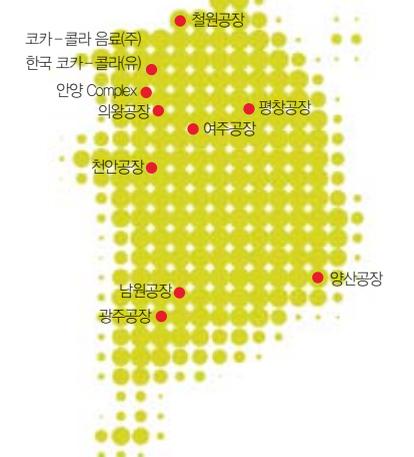
코카-콜라 음료(주) 종업원 현황



국내 사업장

사업장	주 소
코카-콜라 음료(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92번지 LG광화문빌딩
한국 코카-콜라(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흥국생명빌딩 10층
인양 Complex	경기도 인양시 만안구 박달동 614-8번지
여주공장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411-1번지
양산공장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116-1번지
광주공장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8-1번지
남원공장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서울리 88번지
철원공장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478번지
천안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374-2번지
평창공장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139번지
의왕공장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89번지

사업장 위치





Live Positively 환경을 위한 코카-콜라의 약속

코카-콜라는 음료의 원액 제조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환경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협의된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 : 2004의 요구 조건에 맞춰 코카-콜라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과 환경 이해 당사자의 요구 사항, 그리고 코카-콜라 자체의 환경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환경 안전에 대한 KORE(Coca-Cola Operating Requirements)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ive Positively'라는 코카-콜라의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 (Water Stewardship)

코카-콜라의 물 관리 목표는 제품 제조에서 사용한 물과 같은 양의 물을 지역 사회와 자연에 안전하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물 사용량 감소(Reduce) 2004년과 비교하여 2012년까지 물 사용 효율을 20% 향상시켰습니다. 2012년까지 물 사용지수 2.17을 달성하는 것이 코카-콜라의 글로벌 목표입니다.

물 재활용(Recycle) 음료 제조에 사용한 물을 코카-콜라의 엄격한 폐수처리 기준에 부합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없이 깨끗이 처리하여 배출하겠습니다.

물 재충전(Replenish) 최종 제품에 사용된 물과 자연에 되돌려주어야 할 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계보호 및 지역 사회의 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원수보호계획서를 완료하겠습니다.



에너지 기후 보호 (Energy Efficiency and Climate Protection)

에너지 효율과 기후 보호에 있어, 음료 산업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감소(Reduce) 코카-콜라 시스템 내에서 탄소 배출량 증가 없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2015년까지 2004년 기준으로 선진국(Annex I)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5% 줄이겠습니다.

냉장 판매 장비(Refrigeration) HFC-Free 단열물질과 냉매의 전환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집중하여 판매 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대체 연료(Refuel) 배송차량의 동선을 최적화하여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겠습니다. 동시에 포장재 경량화 작업을 통해 배송 연료의 사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포장 (Sustainable Packaging)

포장재를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포장재 사용량 감소(Reduce) 포장재 원료의 양과 그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겠습니다.

포장재 회수(Recover) 오늘날 약 85%에 해당하는 양의 제품이 캔, PET와 같은 재활용 용기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음료 제품의 병과 캔을 100% 재활용 혹은 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50% 달성)

포장재 재사용(Reuse) 회수된 포장재의 재사용 촉진 및 수요 창출을 돕고, 재활용된 포장재나 포장재를 재활용한 제품들을 구매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 관리 체계

공급업체

- 1 음료 원료 설탕, 커피 등 음료의 주요 원료를 전 세계에서 구매합니다.
- 2 물 연간 약 3천억 리터의 물이 제품 생산에 사용됩니다.
- 3 포장재 병, 캔, 트레이 등 제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포장을 위해 포장재를 구매합니다.

코카-콜라 시스템

- 4 코카-콜라 음료의 원액과 원 재료를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하며 마케팅과 광고를 설계합니다.
- 5 보틀링 파트너 독립 보틀링 혹은 코카-콜라 소유 병입 공장들이 완제품 음료의 친환경적 제조와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합니다.

제품 판매

- 6 제품 창고 소매업자를 위해 제품을 저장하고 배송합니다.
- 7 고객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 마트, 식당 등에서 코카-콜라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됩니다.
- 8 자판기와 콜러 소비자가 편리하게 음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천만 대 이상의 자판기와 콜러가 설치되었습니다.
- 9 소비자 코카-콜라의 제품은 하루에 전 세계에서 18억 잔 이상이 판매됩니다.

환경 관리

- 10 자원을 보존하고 포장재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포장량 감소, 재회수, 재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11 제품 제조에 사용한 물의 양과 동등한 양을 지역 사회와 자연에 안전하게 되돌려주는 데 초점을 둡니다.
- 12 제품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 증가 없이 사업을 성장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 정책 선언문

전 세계 코카-콜라사(TCCC)와 보틀링 파트너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환경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우리 문화의 일부이며, 이러한 정책은 모든 코카-콜라 시스템에 걸쳐 적용됩니다. TCCC와 보틀링 파트너는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방식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카-콜라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환경과 관련된 해당 법규 및 회사의 요구 조건들을 준수할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환경에 대한 노력은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되고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에 의해 정의됩니다.

물 자원 관리 코카-콜라 사업이 수행되는 모든 곳에서 지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할 것입니다.

에너지 기후 보호 코카-콜라 사업은 성장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포장 음료 용기의 재활용과 기술 혁신을 통해 제품 포장재가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쓰일 수 있는 체계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정책의 세부 사항

코카-콜라 시스템 내에서 각 조직 단위(사업장 / 공장, 보틀러, 현지 법인)는 다음의 목표를 준수하고 TCCC에서 승인된 개별 사업장의 상황과 위험성에 일관성 있게 다음 각 요소의 필요한 적용 범위와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 환경 정책과 표준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각 조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 제공을 통해 환경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법규 준수 환경 관리와 관련한 코카-콜라의 요구 조건들(코카-콜라 사업 영역에 적용되는 모든 내부 요구 조건) 혹은 해당 법규의 요구 조건들(모든 해당 법규, 규정 및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중에 보다 강한 법규를 적용하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종업원의 참여 및 교육 각 조직 종업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백하게 정의된 역할과 책임, 교육훈련, 의사소통 시스템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험성 평가 환경에 대해 부각되는 경향과 환경과 관련된 위험성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도출합니다. 코카-콜라의 내부 요구 조건과 해당 법적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하고 주기적인 목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위기 관리 및 해결(IMCR) 해당 법규 및 코카-콜라의 내부 요구 조건에 일치하면서, 상표와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회사 자산, 종업원, 계약자, 고객과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환경 사고를 관리합니다.

이해 관계자의 참여 환경 관리에 대한 기업의 의지, 지속 가능한 사업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부, NGO, 다른 사업군 및 지역 사회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합니다.

코카-콜라 전국 사업장



인양 Complex



여주공장



양산공장



광주공장



천안공장



평창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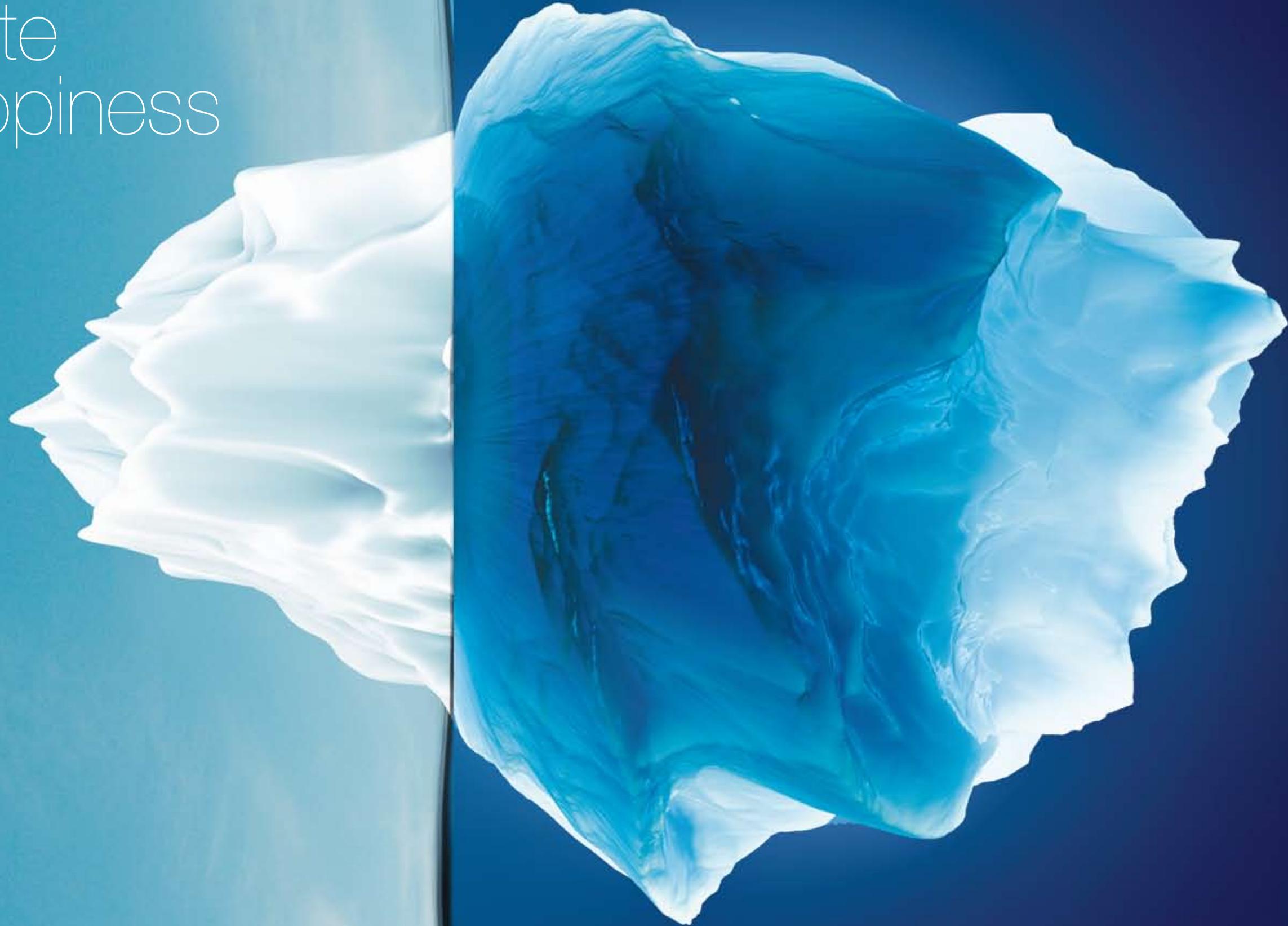
남원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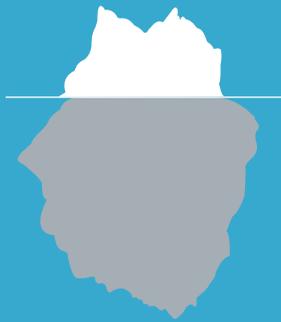


철원공장

More White More Happiness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지켜갈 때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공존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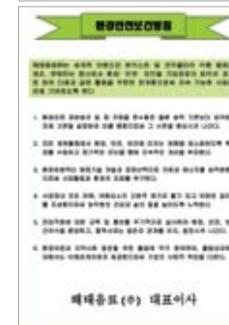


코카-콜라의 환경 경영

코카-콜라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 보건방침



코카-콜라는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며, 임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깨끗한 자연환경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방침

코카-콜라 음료(주)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인 코카-콜라 및 각종 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환경·안전·보건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1 환경안전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
- 2 모든 경영활동에서 환경·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 3 환경친화적인 청정기술 개발과 공정선택으로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사업활동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한다.
- 4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 5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고, 협력회사와는 파트너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
- 6 환경보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활동성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환경 저탄소경영 목표

코카-콜라는 국내 환경 기준과 더불어 코카-콜라 자체 환경 기준(KORE)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해 녹색기업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환경 보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이슈인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탄소성적표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등의 정부 정책에 참여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 ~ 2005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코카-콜라 환경시스템(TCCMS) 구축
- 환경경영 웹시스템 구축

2006 ~ 2009 환경경영체제 확립 및 저탄소경영체계 도입

-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
- 환경친화기업 인증(광주, 여주)
- 사업장 폐기물 감량 자발적 협약 참여
- 사업장 수질 TMS 설치
- 탄소성적표지 시범사업 참여
- 페트병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 참여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 적극적인 환경보전활동 실시

2010 ~ 2020 저탄소 녹색경영 확립

- 환경안전경영시스템 통합
- 전사 저탄소 녹색경영 추진 인력 양성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동 업그레이드
- 제품 포장재 저탄소 재질 개선 활동 실시
- 협력업체(SCM)에 대한 저탄소 경영활동 지원
- 전 사업장 환경친화기업(녹색기업)인증 완료
- 녹색구매 시스템 운영
-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저탄소 제품 인증 확대
- 전사 배출권 거래 기반 구축
- 환경(탄소)보고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환경경영시스템

코카-콜라는 환경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전 사업장에 대해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코카-콜라사의 품질, 환경, 안전 보건 분야에 대한 자체 시스템인 KORE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내에서 인증하는 녹색기업 기준을 사업장에 도입, 운영해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고 환경 동향에 앞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광주공장에 이어 여주공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와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 폐기물 감량 자발적 협약에 이어 2009년에 페트병 감축 자발적 협약을 체결, 기업에 요구되는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울러 전체 임직원의 환경/저탄소경영의 참여 활성을 위해 자체적인 웹시스템을 개발/업그레이드하여 임직원간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및 협약 현황

코카-콜라 음료(주)

	여주공장	양산공장	광주공장
ISO14001	인증 취득	인증 취득	인증 취득
OHSAS18001	인증 취득	인증 취득	인증 취득
KORE(코카-콜라 환경경영인증)	인증 취득	인증 취득	인증 취득
녹색기업	인증 취득	-	인증 취득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	협약 체결	협약 체결	-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해태음료(주), (주)한국음료, 다이아몬드샘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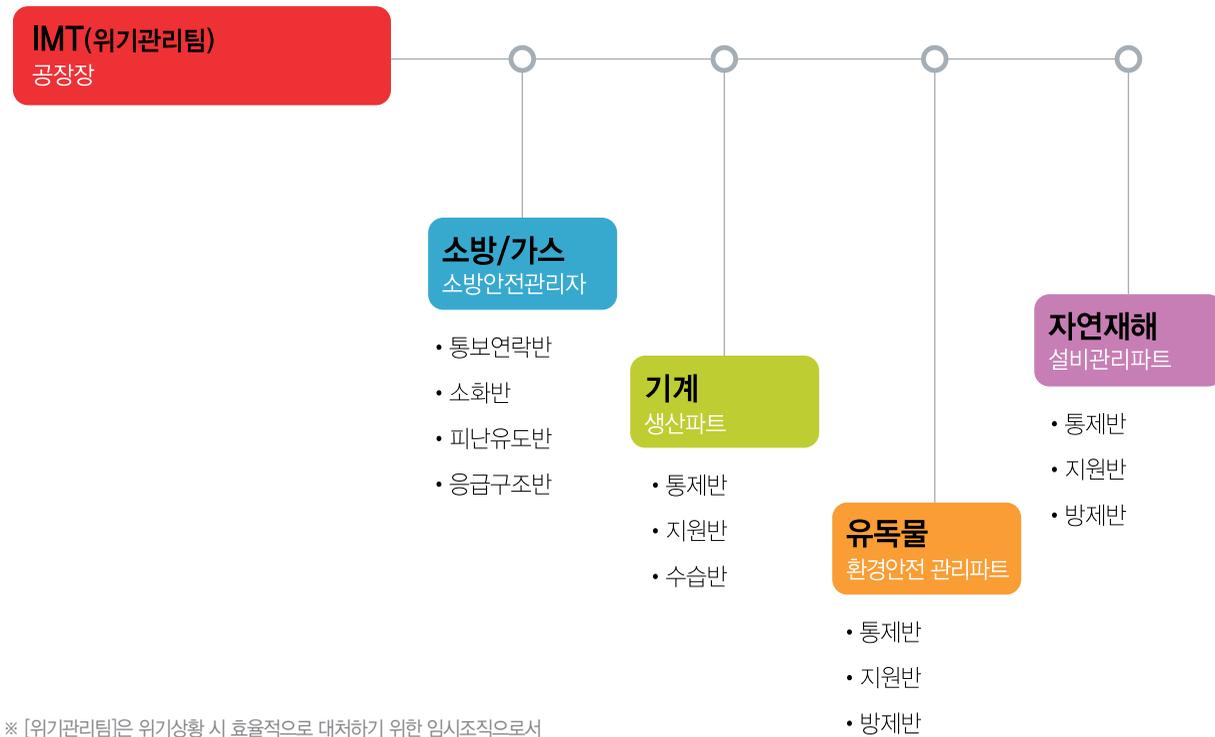
	천안공장	평창공장	남원공장	철원공장
ISO14001	인증 취득	인증 취득	-	-
OHSAS18001	인증 취득	인증 취득	-	-
KORE(코카-콜라 환경경영인증)	-	-	인증 취득	인증 취득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	협약 체결	-	-	-



환경 사고 대응 체계

코카-콜라의 위기관리시스템(Incid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전사적으로 위기관리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팀을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위험 및 사고로부터 예방함은 물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장 위기관리시스템은 개괄적인 위기관리 계획수립부터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경미한 수준', '중간 수준', '중대한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방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기관리시스템



※ [위기관리팀]은 위기상황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임시조직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공장장을 위원장(팀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평가

코카-콜라의 환경성과는 EPM(Environmental Performance Measure)지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음료제조 사업장에서는 환경성과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환경안전 성과측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PM은 전 세계 코카-콜라 시스템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국내 사업장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국외 사업장의 성과를 비교 검토하여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는 음료 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제품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주)한국음료, 다이아몬드샘물(주), 해태음료(주)를 인수하는 한편 각 법인의 사업장에도 코카-콜라와 동일한 환경성과지표를 도입하여 환경관리목표를 관리하고 그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주) 사업장 환경성과지표

항목	단위	2009년 실적	2010년 실적	2011년 실적	2012년 목표
용수 사용지수	용수 · ℓ / 제품 · ℓ	2,65	3,02	2,83	2,64
용수 비용지수	원 / 제품 · 톤	2,547	2,494	2,376	2,412
폐기물 재활용지수	%	76	75	84	96
폐기물 발생(배출)지수	g / 제품 · ℓ	19,83	19,61	18,77	18,52
폐합성수지 재활용률	%	96	84	75	82
슬러지 발생지수	g / 폐수 · ℓ	4,76	4,92	5,10	3,27
폐수 처리비용지수	원 / 폐수 · 톤	667	633	656	367
전력사용지수	제품 · ℓ / kWh	18	17,9	17,7	17,1
연료사용지수(LNG)	제품 · ℓ / m ³	111,5	105,5	105,2	97,1

해태음료(주), (주)한국음료, 다이아몬드샘물(주) 사업장 환경성과목표 (2012년 목표)

항목	단위	천안공장	평창공장	남원공장	철원공장
용수 사용지수	용수 · ℓ / 제품 · ℓ	3,28	1,12	4,48	1,21
용수 비용지수	원 / 제품 · 톤	5,470	2,815	3,222	2,591
폐기물 발생(배출)지수	g / 제품 · ℓ	17,98	0,26	11,38	1,74
슬러지 발생지수	g / 폐수 · ℓ	0,82	0	1,78	0

※ 법인별 사업장 : 해태음료(주) - 천안 / 평창, (주)한국음료 - 남원, 다이아몬드샘물(주) - 철원



환경경영심사

코카-콜라는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경영시스템(KORE)과 ISO14001규정에 따라 내부인원에 의한 내부심사 및 사업장 간 교차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인원에 의한 점검은 월 1회 주기로 이루어지며, 상호교차 감사는 공장 벤치마킹 차원에서 각 공장에서 담당자와 타공장을 방문하여 내부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코카-콜라 음료(주)에서 전사 환경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HES팀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의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ISO14001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연 1회)와 재인증심사(3년 1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KORE 심사를 사업장별로 수검 받아서 환경경영 상태를 업그레이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 심사의 구성

종류	적용 대상	감사자	적용 내용
ESH 영향 및 측면 파악	ISO14001, OHSAS18001 규정에 의함	각 사업장 ESH 담당자	ESH 경영시스템에 반영
환경영향평가	신규 부동산 및 동산에 적용	외부 전문기관 내부 환경전문가	신규계약서 지침서에 반영
영업 / 물류 ESH 점검	개별 사업장에 적용 (물류센터 / 공장)	사내 ESH 담당자	법규 / 코카-콜라 규격 준수에 반영
협력업체 ESH 감사	원부자재공급 OEM 업체 적용	사내 ESH 담당자	법규 / 코카-콜라 규격 준수에 반영

2011년도 KORE 환경심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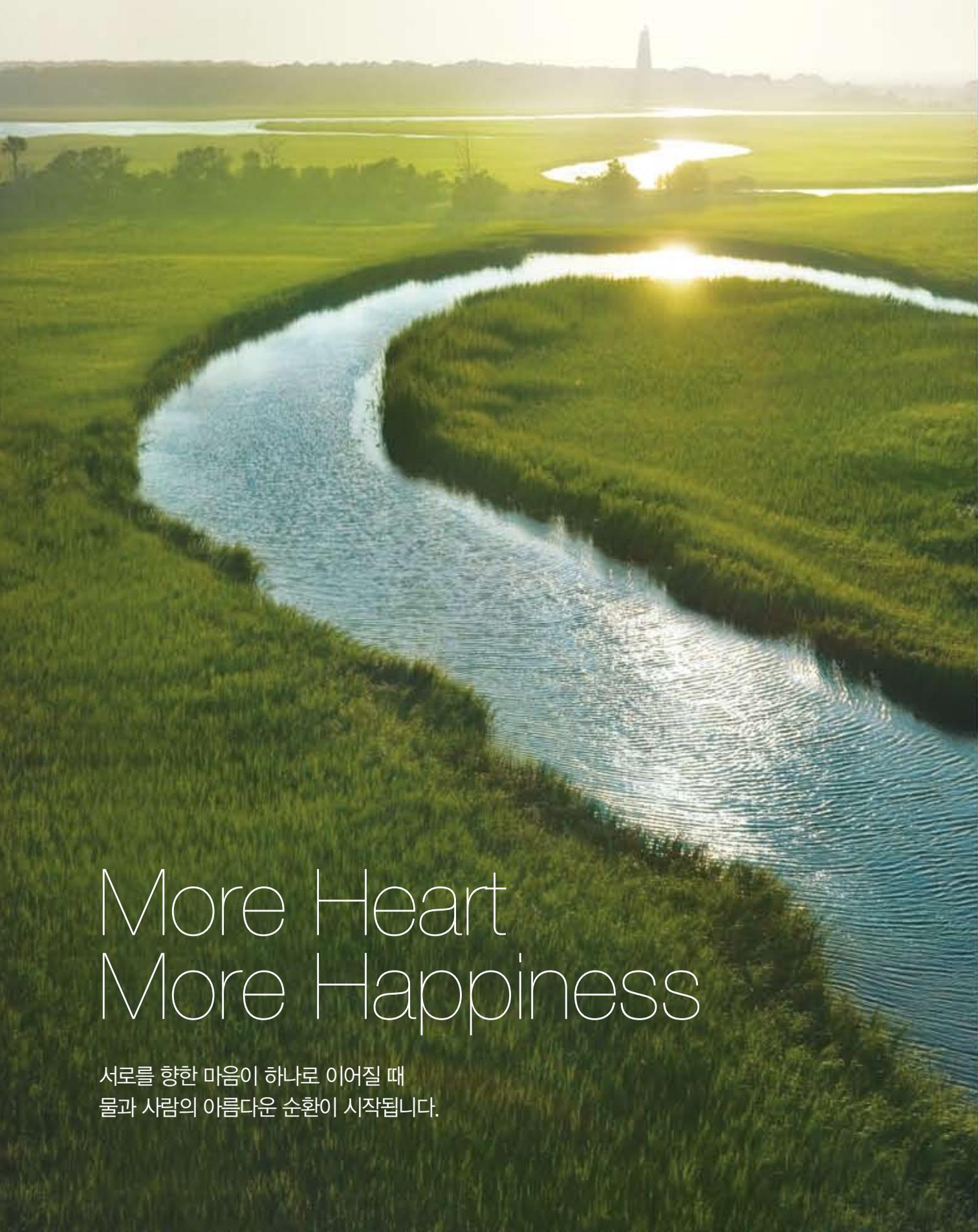
	양산	광주	남원
심사기관	LRQA	LRQA	LRQA
일시	2011년 5월 16일 ~ 19일	2011년 4월 25일 ~ 28일	2011년 11월 14일 ~ 17일
개선 / 권고사항	에너지 효율관리에 대한 환경영향(에너지 효율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함	사업장 내 계약 업체 방문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	환경사고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의 수립과 대응 훈련 미흡

※ 2011년도 KORE 환경심사는 양산 / 광주 / 남원 공장에서만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ISO14001 외부심사 결과

	여주	양산	광주	천안	평창
심사기관	LRQA	LRQA	LRQA	LRQA	LRQA
일시	2011년 4월 18일 ~ 20일	2011년 5월 20일	2011년 4월 29일	2011년 11월 9일 ~ 11일	2011년 12월 15일 ~ 16일
긍정적 측면	지난 사후관리 심사에서 제기된 발견 사항에 대한 적절한 검토 및 조치가 이루어짐	전체적인 환경법규를 준수 하고 있으며, 1사 1 하천 등 정화 활동 등의 대외적인 환경 활동 사항 양호	주요 환경 성과 지표 2010년 대비 개선됨	천안공장의 전반적인 환경 관리업무가 관련 회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	내부심사 시 발견된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이 대부분 시정
개선 / 권고사항	HES팀의 전사 법규등록부 및 각 공장별 법규적용검토서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최신 상태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공장장 주재로 환경관련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경영검토 할 것	용수 사용지수, 폐기물 발생지수 등의 주요 환경 지표가 2011년 9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 미달 및 전년 대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원인파악 등으로 근본적인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함
부적합 사항	환경성과지표 목표 대비 실적 저조함	우폐수관망도 업데이트 필요(폐기물처리장 주변)	환경 측면 파악 및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2008년 10월 이후 재검토되지 않음	환경 측면 파악 및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한 파트 별 주요 프로세스 별로 발생 가능한 모든 환경 측면이 파악되어 있지는 않음	보유한 MSDS 업데이트 필요



More Heart More Happiness

서로를 향한 마음이 하나로 이어질 때
물과 사람의 아름다운 순환이 시작됩니다.





용수관리

코카-콜라는 소중한 자원인 물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음료 제품 제조를 위해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는 제품용수로 사용하고, 기타 생산공정상 필요한 물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지하수와 하천수를 사용합니다. 당사 제조 사업장에서는 물 절약 TFT를 조직하여, 생산부문 내의 각 부서 전문가들의 참여로 지속적으로 물 절약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 절약 TFT 활동에서는 먼저 제품 제조과정에서 낭비되는 물 사용처를 조사하며, 사용된 물이라 하더라도 공정 중에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이 물 절약 TFT의 미션이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주공장에서는 커피 제품 & PET 제품 생산라인 냉각수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양산공장에서는 PET 라인 냉각시설을 개선하여 물 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광주공장에서는 살균기의 스팀/용수공급시스템을 개선하여 물 낭비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수자원 보호와 재활용

코카-콜라는 인류의 소중한 환경 자원인 수자원 보호를 위해 엄격한 폐수 관리와 함께 용수 절약 및 폐기물 배출량 감축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료 용기가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 용기 개발 및 재활용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지수

(단위 : l/FBL)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09년	2.53	2.77	2.83	2.65
2010년	2.84	3.47	2.96	3.02
2011년	2.57	3.58	2.59	2.83

용수 사용실적

(단위 : m³)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09년	797,566	416,017	261,334	1,474,917
2010년	1,007,429	551,671	320,029	1,879,129
2011년	979,486	589,675	300,722	1,869,883

용수 재이용 실적

(단위 : m³)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09년	54,972	70,776	13,045	138,793
2010년	62,590	34,519	14,980	112,089
2011년	65,395	190,675	15,205	271,275

용수 재이용율(용수 재이용량/용수 사용량)

(단위 : %)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09년	6.89	17.01	4.99	9.41
2010년	6.21	6.26	4.68	5.96
2011년	6.68	32.34	5.06	14.51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코카-콜라는 내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법적 요구사항보다 더욱 엄격하게 폐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 및 양산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인근 점봉천, 양산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습니다. 광주공장은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공단지역 법규에 따라 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 생산계획/준비를 통해 제품 불량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각 공장의 환경안전관리파트에서 스마트한 폐수처리장 운영을 통해 폐수처리효율을 높였습니다. 여주공장은 폐수처리장 폭기조의 에어공급밸브 교체작업을 실시하여 폭기조 효율 향상 및 폐수처리수 수질을 향상시켰고, 양산공장은 R/O 응축수 재활용설비 도입을 통한 폐수배출량 감소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광주공장은 생산현장 내에 유수분리기 설치를 확대하여 폐수처리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방류수 평균 수질

(단위: mg/l)



	여주		양산		광주		총계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 수질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 수질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 수질	
BOD5	30	5.89	40	6.21	120	9.93	6.8
CODmn	40	14.6	50	10.96	130	22.22	15.11
SS	30	2.47	40	4.81	120	16.02	5.89

CODmn 배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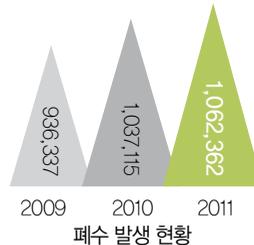
(단위: 톤/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09년	6.25	2.38	2.47	11.10
2010년	8.57	3.64	4.53	16.57
2011년	7.97	3.31	4.80	16.09

폐수 발생 현황

(단위: 톤/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09년	460,122	292,707	183,508	936,337
2010년	596,433	239,369	201,313	1,037,115
2011년	546,373	301,850	216,139	1,062,362



유해화학물질 관리

코카-콜라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줄이고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대비한 위기관리절차 구축 및 비상사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유독물을 보관하고, 저장 장소에는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출될 경우에는 폐수처리장과 연결된 관로에 전량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로에 유독물 유입이 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보관장소를 떨어진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기존 유해화학물질 설비 중 노후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공정을 개선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주공장에서는 세척시스템을 설치하여 병 세척 시 수산화나트륨 사용량을 절감하였습니다. 양산공장은 겨울철 온도저하에 따른 유해화학약품의 결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독물 보관창고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광주공장의 경우 생산라인 내의 냉동기에 대해 예방정비를 실시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 현황

(단위: 톤/년)



공장	용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산화나트륨	284.0	350.2
여주 공장	황산	6.0	3.0	8.0
	질산	2.0	4.6	4.8
	염산	2.0	2.1	1.5
	총계	294.0	359.9	317.1
양산 공장	수산화나트륨	232.0	248.1	275.1
	황산	3.7	2.4	7.6
	질산	5.5	6.2	6.5
	총계	241.2	256.7	289.2
광주 공장	수산화나트륨	106.0	104.2	118.1
	황산	36.0	30.4	32.7
	질산	0.0	0.1	0.0
	총계	142.0	134.7	150.8



폐기물 관리

코카-콜라는 폐기물 관리 작업표준지침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재활용 업체는 코카-콜라의 '협력업체관리 작업표준서'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폐기물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분리 배출 확대 유도, 신규환경 설비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꾸준히 폐기물 배출량 감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주공장은 RGB 세병시스템 개선을 통해 파병률 및 폐유리 발생량을 줄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공장은 환입제품 처리장의 PET 파쇄기를 개보수하여 처리 효율을 향상시켰고, 광주공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안되고 소각 처리한 폐기물들을 고품원료(RDF)화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처리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전체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09년	6,135	2,531	2,381	11,047
2010년	6,053	3,460	2,673	12,186
2011년	6,198	3,736	2,484	12,418

폐기물 재활용률

(단위 : %)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09년	64	97	82	76
2010년	58	88	99	75
2011년	76	96	98	84

슬러지 발생량

(단위 : 톤/년)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09년	3,031	710	783	4,524
2010년	2,966	1,161	1,057	5,184
2011년	3,058	1,404	984	5,446

폐기물 발생지수

(단위 : g / 제품 · ℓ)

	여주	양산	광주	총계
2009년	19.49	16.88	25.78	19.83
2010년	17.09	21.75	24.75	19.61
2011년	16.27	22.69	21.43	18.77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 빈용기 보증금 제도

코카-콜라는 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코카-콜라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코카-콜라와 킨 사이다, 환타 등 병 제품(190ml, 200ml, 350ml, 355ml)의 2011년 반환 실적은 99.2%입니다.

코카-콜라는 페트병, 금속캔, 유리병 형태의 포장 용기와 2차 포장에 사용되는 단일재질필름의 재활용 시스템 운영을 위해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제도발전을 위해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재활용 분담금으로 약 50억을 납부하여 재활용공제조합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주) 재활용분담금 납부 현황 (단위 : 백만 원)

	금 액
2009년	2,642
2010년	2,751
2011년	4,996

빈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 용기회수 실적 (단위 : %)

	용기 회수율
2009년	99.5
2010년	98.8
2011년	99.2

당사 빈용기 보증금 제도 해당 제품(190ml ~ 400ml RGB 제품에 해당)



빈용기 규격별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단위 : 원)

품목	규격	빈용기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주류 청량음료류	190ml 미만	20	5
	190ml 이상 400ml 미만	40	13(자사 해당 사항)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	16
	1,000ml 이상	100 ~ 300	20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

- 빈 용기를 취급하는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한함)
- 소매업자에게 50%이상 지급 (단, 공병수집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More Green More Happiness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생명을 지켜갈 때
사람과 자연의 행복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에너지 관리 및 기후 변화 방지 활동

코카-콜라는 2009년 12월 환경부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체계

코카-콜라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12월 환경부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 온실가스 감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업 및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할당받은 후 배출 허용 총량과 실제 배출량 사이의 초과분 또는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서 시작됩니다.

코카-콜라는 2010년 전체 사업장, 정비센터 및 영업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준 배출량(2005~2007년 평균 배출량) 확정 및 각 사업장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고, 배출권 거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직접, 간접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조직경계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설정, 배출 활동 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을 선택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축기간은 2005년 ~ 2011년으로 연간 배출량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설정하였습니다.

코카-콜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가이드 라인, WRI / WBSCD의 GHG 프로토콜 가이드 라인, ISO14064-1에 의거하여 구축되었으며, 산정범위는 Scope 1, 2로 구분하여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범위는 크게 직접 배출(Scope 1)과 간접 배출(Scope 2, 3)로 구분됩니다. 직접 배출은 소유하고 있거나 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지칭합니다. 간접 배출은 기업이 외부에서 구입하는 전력이나 스팀으로 인해 발생하는 Scope 2와 임직원의 업무 출장 또는 통근 등과 같은 기타 모든 간접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Scope 3로 구분됩니다.

코카-콜라 음료(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범위

	조직 경계	기간 경계
사업장(3)	여주, 양산, 광주	2005년 ~ 2011년
정비센터(1)	군포	
영업물류(26)	안양, 하남, 인천, 일산, 남양주, 춘천, 수원, 강릉, 충주, 사상, 울산, 마산, 진주, 통영, 대구, 포항, 구미, 안동, 목포, 순천, 제주, 전북, 대전, 천안, 서산, 성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Scope)

	내용	해당 사항
직접 배출 Scope 1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탈루배출
간접 배출 Scope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활동 결과로 발생하였으나 다른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기업이 구입하는 전력 / 스팀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배출 	전력 구매
Scope 3	기타 모든 간접적인 배출	없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코카-콜라 음료(주)의 2005년 ~ 2011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42,272톤이었습니다. 이중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사 매출증감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매출량과 생산량 증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위 : tCO₂-eq / 년)

Scope별 온실가스 배출 비율

배출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비율(%)	
직접 배출	고정연소	11,317	10,833	9,359	10,902	11,911	13,893	14,874	11,870	28%
	이동연소	11,350	11,243	11,466	11,037	11,081	10,565	12,216	11,280	27%
	공정배출	2,576	2,730	2,408	2,504	2,326	3,083	3,157	2,683	6%
	탈루배출	327	328	288	411	334	259	240	312	1%
간접 배출	전기구매	15,086	14,835	13,649	15,332	16,156	18,137	19,692	16,126	38%
전체 총계	40,656	39,970	37,170	40,185	41,808	45,936	50,179	42,272	100%	

코카-콜라의 Scope별 배출 비율은 직접 배출(Scope 1)이 62%, 간접 배출(Scope 2)이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배출 중에서 이동연소가 27%, 고정연소가 28%, 공정배출이 6%, 탈루배출은 1%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사용량이 전체 간접 배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사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당사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및 시설

배출원	주요 배출 시설	
직접 배출	고정연소	보일러(LNG) 및 취사설비(LNG, LPG), 난방기(등유)
	이동연소	승용차량(휘발유), 승합차량(경유), 기타 비도로차량(지게차, LPG, 경유), 화물차량(경유), 특수차량(견인차량, 경유)
	공정배출	탄산음료 탄산주입설비
	탈루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₂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 소화기 HFCs를 냉매 또는 약제로 사용하는 냉동기, 냉각기, 냉방기 기타 온실가스를 냉매 또는 약제로 사용하는 에어컨, 냉동기, 향온습기 등
간접 배출	구매전력	사업장(생산라인, 폐수처리장) & 영업물류 전력구매



온실가스 배출량

당사의 사업장 및 영업 물류,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유형은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간접 배출로 구분하였습니다. 고정연소의 경우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LNG 보일러 및 난방용 등유설비가 주요설비입니다. 이동연소의 주요설비는 영업용 휘발유, 경유차량 및 LPG를 사용하는 지게차입니다. 공정배출은 탄산음료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액상 CO₂ 중 제조과정에서 제품에 주입되지 못하고 탈루가 되는 CO₂를 대상으로 배출량을 파악했습니다. 간접 배출은 한국전력에서 구매하는 전력사용량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영업물류에서 온실가스 배출유형은 고정연소, 이동연소, 탈루배출, 간접 배출, 네 가지입니다. 고정연소는 영업소에서 사용한 난방설비가 주요설비이며, 이동연소는 영업용 휘발유, 경유차량 및 LPG를 사용하는 지게차가 주요설비입니다. 탈루배출은 CO₂소화기와 HFCs를 냉매제로 사용하는 자판기 등의 설비가 주요설비이며, 간접 배출은 한국전력에서 구매하는 전력사용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위 : tCO₂-eq / 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여주공장	총계	16,202	15,563	13,360	15,823	16,795	18,882	19,532
	고정연소	7,117	6,617	5,510	6,564	6,893	7,997	8,599
	이동연소	739	664	610	718	793	859	-
	공정배출	1,295	1,274	1,145	1,398	1,242	1,229	1,530
	간접 배출	7,051	7,009	6,095	7,143	7,866	8,797	9,402
양산공장	총계	8,213	8,172	7,634	7,854	8,151	9,832	9,303
	고정연소	2,115	2,191	2,063	2,485	2,824	3,298	3,773
	이동연소	1,494	1,305	1,265	1,021	989	1,132	-
	공정배출	795	950	831	682	675	1,249	943
	간접 배출	3,809	3,726	3,475	3,665	3,663	4,153	4,586
광주공장	총계	5,469	5,224	4,872	5,300	5,738	6,712	6,004
	고정연소	1,403	1,392	1,206	1,288	1,631	2,023	1,832
	이동연소	906	812	812	752	741	802	-
	공정배출	487	506	431	423	409	605	683
	간접 배출	2,673	2,514	2,423	2,837	2,956	3,281	3,489
영업물류	총계	10,772	11,011	11,303	11,207	11,124	10,511	15,340
	고정연소	682	634	580	564	562	575	670
	이동연소	8,210	8,462	8,779	8,546	8,558	7,771	12,216
	탈루배출	327	328	288	411	334	259	240
	간접 배출	1,553	1,587	1,656	1,686	1,670	1,906	2,214



온실가스 감축 실적

코카-콜라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노후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주요설비 전력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주요 프로젝트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성과

	개선 항목	내용	기대 효과
여주	발열설비 격리, 급배기시설 설치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해 작업장 온도 상승이 발생됨에 따라 열기 발생설비를 구획하고, 국소배기함으로써 냉방에 사용되는 전력사용량 절감	열기 발생 설비를 구획, 급배기함으로써 냉방 효율 상승으로 전력사용량 감소
	PET / CAN 난방용 스팀 공급 배관 및 응축수 회수 배관 교체	PET / CAN 생산현장 난방용 스팀공급 배관 및 응축수 회수 배관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심화로 배관 누수 발생이 빈번하여 배관을 교체하여 스팀 누출 방지	노후 배관을 교체하여 스팀 누출 방지를 통한 LNG 사용량 절감
	압축공기 대체용 개별 Blower 설치	PET / CAN 라인의 날짜기목기 전 구간에서 제품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의 고압용 에어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음	압축공기 대신 저압용 터보브로워, 링브로워를 사용하여 전력사용량 절감
	스팀 응축수 회수 시스템 개선	스팀 응축수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증발 증기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순환펌프 신규 설치와 재증발 증기를 응축시켜 재활용하고 노후로 사용 불가한 응축수 회수 장비(펌프)를 신규로 교체하여 응축수를 회수, 보일러 급수에 재활용함으로써 LNG 사용량 절감	스팀 폐열 회수를 통한 LNG 사용량 절감
양산	열배기 설치공사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하여 작업장 온도 상승이 발생됨에 따라 열기 발생설비를 구획하고, 국소배기함으로써 냉방에 사용되는 전력사용량 절감	열기 발생설비를 구획, 급배기함으로써 냉방 효율 상승으로 전력사용량 감소
	CAN 냉동기 교체	냉동기 압축기 교체	고효율 냉동기(스크류 타입) 교체를 통한 전력사용량 절감
	열효율이 높은 관류 (3톤, 6대) 보일러로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 (노통 연관식 → 관류식)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통해 효율 향상으로 LNG 사용량 절감
광주	제품 창고 전등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	메탈할라이드램프를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	메탈등 교체에 따른 전력 사용 (절감 효과 : 7.5MWh / 년)
	노후 보일러 교체	보일러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일러 에너지 효율 84% → 94% 개선 93백만 / 년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후 온수저장탱크 교체	온수저장탱크 교체	연료(LNG)절감 1m ³ / 일 - 20일/월 * 12개월 = 240Nm ³ / 년

냉매가스 교체 실적

또한 코카-콜라는 10년 전부터 CFC 계열의 냉매사용장비를 오존층 파괴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HFC 계열 냉매 사용 장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약 96%의 CFC 냉매 장비가 교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코카-콜라에서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HFC를 줄이기 위해 HFC-free의 친환경 냉매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위 : %)

	2009년	2010년	2011년
CFCs	8.1	5.4	3.7
HCFCs	0	0	0
HFCs	91.9	94.6	96.3



녹색구매

코카-콜라는 2010년 6월부터 친환경상품 생산, 구매를 통한 녹색생산과 소비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친환경상품 보급정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한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는 녹색구매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필수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2008년부터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색구매 실적 파악 및 소비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매실적 중 “환경마크 인증 제품”과 “리필제품”, “재생제품”, “고효율제품” 구매 실적을 녹색구매 활동으로 구분하여, 녹색구매 수준을 파악하고, 그 결과 MRO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구매된 항목 중 2011년 약 7.5%가 친환경상품 구매량으로 분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카-콜라 녹색구매 현황

(단위 : 원)

구분	총 구매액	친환경상품			녹색구매율	
		환경마크	리필/고효율	소계		
2011년	여주공장	570,898,570	65,994,440	2,016,490	68,010,930	11.9%
	양산공장	210,294,328	1,987,560	930,319	2,917,879	1.4%
	광주공장	221,994,420	4,569,700	92,610	4,662,310	2.1%
	합계	1,003,187,318	72,551,700	3,039,419	75,591,119	7.5%
2010년	여주공장	425,037,670	13,222,290	2,093,260	15,315,550	3.6%
	양산공장	198,485,166	2,163,300	893,503	3,056,803	1.5%
	광주공장	164,813,394	4,661,330	231,851	4,893,181	3.0%
	합계	425,037,670	13,222,290	2,093,260	15,315,550	3.6%
2009년	여주공장	415,425,704	13,827,580	1,033,480	14,861,060	3.6%
	양산공장	231,659,278	2,371,900	333,396	2,705,296	1.2%
	광주공장	188,824,639	7,556,500	258,952	7,815,452	4.1%
	합계	835,909,621	23,755,980	1,625,828	25,381,808	3.0%

※ MRO 전체 구매 실적에서 녹색구매 대상품목으로 볼 수 없는 구매 품목 제외

① 저장품: 정수카트리지를, 지판기용 데칼/사인보드/백판필 등 ② 수선유지보수품목: 펌프류, 철강재 등 ③ 간접재료비: 스트레치필름, 희석제, 청관제 등

탄소성적표지

코카-콜라는 2008년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성적표지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국내 음료업체 최초로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탄소성적표지는 기업이 제품 제조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자발적으로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즉, 제품과 서비스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PET 500ml)로 2008년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 취득하였고, 2009년에는 정식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2010년에는 코카-콜라 제로(캔 250ml), 휘오 순수(2L), 휘오 순수(0.5L)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총 4개가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앞으로도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확대 및 배출량 감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제품 인증제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단위 : gCO₂ / 개)

제조명	제조 전 단계	제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코카-콜라 500ml(PET)	183	41	0	13	237
코카-콜라 제로 250ml(캔)	51	15	0	1	67
휘오 순수(2L)	167	65	0	19	251
휘오 순수(0.5L)	66	20	0	8	94

Keep them safe We are all happy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꿀 때
사람과 자연의 즐거운 동행이 시작됩니다.





휘오 순수 그린패키징 공모전 은상 수상

코카-콜라는 친환경적인 포장 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제1회 그린패키징 공모전(Green Packing Contest)'에 휘오 순수 제품으로 참가하여 2011년 12월 1일에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2009년 18,580천 톤)에서 중량기준 34%, 부피기준 50%를 차지하며 이를 줄이는 것이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자원 절약에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또한 친환경 구매에 능동적인 Eco-sumer 소비자들에게 '휘오 순수'의 친환경적인 포장 기술을 소개하며 '줄이기(Reduce), 다시 사용하기(Reuse), 재활용하기(Recycle)'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휘오 순수'의 페트병(500ml)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기존 자사제품 대비 무려 22%나 감소시킨 14g의 초경량 제품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기존대비 약 152톤을 줄임으로써 생산에 필요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며, 현재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환경 보전 및 지역 사회 환경 개선

코카-콜라는 2007년부터 'Earth Hour' 캠페인에 참여해 1시간 동안 전등을 끄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작은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해양환경보전 실천행사인 ICC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환경 캠페인

코카-콜라는 "LIVE POSITIVELY"를 실천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지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선사하는 18억여 잔의 상쾌한 음료 제품, 지역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1시간 Earth Hour(지구시간)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주관하는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인 '지구시간(Earth Hour)'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일반 시민, 기업, 지역 사회, 단체가 한 시간 동안 가정 및 건물 등에서 지발적으로 소등에 참여하며, 환경문제와 지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올해는 3월 31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글로벌 코카-콜라는 2007년 1월부터 'Earth Hour' 프로그램의 글로벌 후원사로 참가해왔으며, 한국 코카-콜라에서도 2009년부터 4년째 전국의 주요 코카-콜라 사업장과 고객사, 협력사들이 함께 시간 동안 전등을 끄고 기후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에 동참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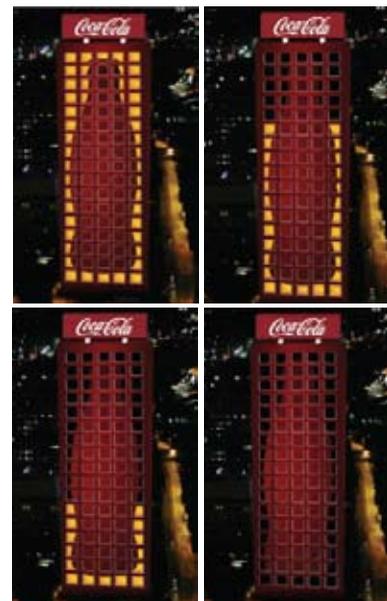
특히 올해는 Earth Hour 한국사무국과 제휴를 맺고 '지구시간' 행사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 일주일 전 명동예술극장 앞과 행사 당일 녹사평역에서 지구촌 전등끄기 동참 메시지가 담긴 스크래치 대형 그림판을 설치하고, 시민 한 명 한 명이 모여 동전으로 긁으면 하나의 메시지가 완성되는 거리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또한, 코카-콜라 공식 홈페이지와 한국 코카-콜라 공식 기업 트위터 및 파워 블로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3월 31일 행사 당일에는 기업 트위터를 통해 Coke Earth Hour Building 이벤트를 운영해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트위터 팔로워들의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 참여율에 따라 코카-콜라 빌딩 이미지의 전등이 꺼져가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공유하면서 팔로워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Earth Hour 공식 트위터에 이벤트의 진행 과정이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리트윗이 확산돼 한국의 참여 노력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코카-콜라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저탄소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린이 환경 교육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

코카-콜라는 2008년부터 모든 음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건강한 삶에 필수 요소인 '물'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환경전문단체인 환경재단과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깨끗한 물 희망 캠페인'에 이어 2010년에는 물자원 절약 습관을 길러주는 '수비수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습지 탐험을 통해



환경과 생태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은 연중으로 운영되는 환경 프로그램입니다. 습지 탐험과 환경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태계의 공생관계와 습지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생명 존중과 자연 보존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그린리더를 양성합니다. 다양한 조류, 어류, 곤충들을 관찰하고 습지의 역할에 대해 직접 체험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충남 태안군 안면도를 비롯해 한강 강서습지생태공원, 강원도 청초호, 마산 봉암갯벌 등 국내 대표적인 연안 습지에서 총 4차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약 140여 명의 어린이 환경 지킴이를 양성했습니다. 습지 탐험 종료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제출한 소감 및 환경 실천 다짐에 관한 에세이와 교육 참여도를 바탕으로 우수 그린리더를 선발해 시상하는 연말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우수 그린리더로 선발된 총 3명의 학생에게는 각각 '환경부 장관상'과 '코카-콜라 환경상', '환경재단상'을 '우수 그린리더'로 선정된 초등학생 16명에게는 상장 및 환경도서, 코카-콜라 기념품 등을 시상했습니다.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은 2012년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올해는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국내 주요 습지인 강화 매화마을 곤락지, 대안산 용늪, 창녕 우포늪, 순천만에서 진행되며 최우수 그린리더 5명에게는 해외 습지 탐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그린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및 가족과 함께하는 ICC(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2011년 기준, 26번째 실시되고 있는 ICC(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국제연안정화의 날)는 전 세계 연안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가장 큰 규모의 해양환경보전 실천 행사입니다. 해양 오염 쓰레기 및 잔해를 치우고 쓰레기의 원료를 파악,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됩니다. 코카-콜라는 16년째 이 행사를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2011 ICC(9월 17일)를 앞두고 지난 9월 3일 한국 코카-콜라의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창릉천 난지한강공원에서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NGO 환경 단체와 함께 진행된 2011 ICC에서는 환경 교육 및 주변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료수 캔, 병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등 총 50개 봉투, 총 1,500kg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수거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는 모니터링 활동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임직원 가족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행사의 의미가 한층 더 깊어졌으며, 참가자 모두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0년 기준, 코카-콜라는 40개 국가에서 26,000명 이상의 임직원 및 가족이 봉사자로 참가한 가운데 총 20만 시간 이상 정화활동을 펼친 결과, 약 18만kg(약 40만 파운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남극의 눈물을 달래주세요



2011년 말 MBC에서 방영된 '남극의 눈물'을 통해 남극이 재조명을 받고 있었던 당시, 나에게 믿을 수 없는 기회가 주어졌다. "Live Positively", 즉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지구 환경을 먼저 생각하지는 코카-콜라의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2041 IAE(International Antarctica Expedition)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었다. 남극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지구를 위한 1시간 불끄기 'Earth Hour'와 코카-콜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던 나에게 직접 남극의 환경을 보고 느낄 수 있는 2041 남극 탐험단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2012년 올해는 2041 IAE 프로그램에 22개국에서 모인 72명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남극에서 그들과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다.

글 · 사진 심재현 부장(한국 코카-콜라유)

남극을 마주 보다

남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존재한다. 그 첫 번째 난관이 바로 남극으로의 이동이다. 한국에서 정확히 12시간 차이 나는 지구 정반대의 나라 아르헨티나까지 날아가 '세상의 끝(Fin Del Mundo)'이라 불리는 척박한 "우슈아이아(Ushuaia)로 약 6시간의 비행 후 또 이틀에 걸쳐 드레이크 해협(Drake Passage)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남극을 마주할 수 있다. 평균 8m의 파고를 견뎌내고 나서야 도착한 남극대륙은 산뜻함의 극치였다. 신선한 공기, 우리를 반겨준 쌍 무지개, 그리고 MBC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에서 소개된 유빙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남극은 15억 년 전부터 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겨울에는 혹한 때문에 호주보다 커졌다가 여름인 1~3월에는 호주의 2/3 정도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대륙이다. 기온 역시 가장 낮은 날은 러시아 기지 근처에서 측정된 온도가 영하 89.3도라고 하니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런 기후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극대륙 탐사도 보통 10월에서 3월까지 짧은 5개월 동안만 가능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황제펭귄, 킹펭귄, 전투펭귄 등 8천 5백만 마리 펭귄들의 독차지가 된다.

남극을 경험하다

2041 IAE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은 크게 남극 환경 보호 필요성, 실천 프로그램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리더십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TV 프로그램 1박 2일에서나 볼 줄 알았던 남극대륙에서의 야생 1박이나, 남극 바다에 뛰어들었던 남극펭귄 수영대회 "Polar Plunge"는 잊지 못할 추억이기도 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 중 하나다.

또한 자연 생태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남극의 자연이 훼손되고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여정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거대한 빙하는 평생 잊지 못할 웅장한 광경을 연출해주었지만, 사실 그 빙하는 녹아서 떠내려온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의 눈물을 보여준 것이었다.

남극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다

'환경'이라는 하나의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과의 인연은 특별했다. 아프간에서 왼쪽 다리를 잃어버린 미국군 장교 카메룬이나 영국의 루지 국가대표였다가 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 인나,



이 두 사람은 탐험 내내 험난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 한계가 없음을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었다. 또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게 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몰디브에서 온 슈나즈, 물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알래스카부터 자전거로 22개월 만에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 도착한 독일 청년 마이클과 주스트와의 만남은 평생 잊지 못할 자극이자 추억으로 남았다. 특히 진정한 리더십이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고 따르도록 해주는 "Follow-ship"이라고 말한 로버트 스완의 리더십에 대한 철학은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로버트 스완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소중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라는 믿음"이라고, 환경을 지키는 노력은 더 이상 정부와 기업들만의 몫이 아니다. 개인도 이전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환경 보전이란 거창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도 남극에서 경험한 너무나 아름다웠던 자연을 우리 딸도 커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니, 실천이 훨씬 쉬워졌다. 필요 없이 켜져 있는 전등을 끄고, 회의 후 끄지 않은 빔프로젝터를 끄고, 충전이 완료된 내 휴대폰의 플러그를 뽑는 등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글로벌 코카-콜라사는 2003년부터 남극과 북극을 도보로 탐험한 세계 최초의 탐험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로버트 스완'(Robert Swan)을 후원해왔습니다. 또한 지구 사랑에 동참하고자 2041 IAE(International Antarctica Expedition) 프로그램에 코카-콜라 글로벌 직원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등 남극 탐험 및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본사의 심재현 부장이 직접 아르헨티나 최남단 도시 우수아이아에서 출발하여, 태양광,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E-Base에 머물며 18박 19일 동안 남극 탐사를 하는 생생한 체험기를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환경 보전의 의지를 일깨우고자 합니다. 2041 IAE(International Antarctica Expedition)란? 1991년 자연 탐사 및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남극 보호 조약이 만료되는 해인 2041년의 명칭을 딴 것으로, 전 세계 환경 보호가들이 남극의 중요성을 알리고 2041년이 지나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영유권 분쟁 및 자원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전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PlantBottle



코카-콜라사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식물성 소재를 원료로 한 환경친화적 용기인 '플랜트보틀(PlantBottle)'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코카-콜라가 국내에서 선보이는 '코카-콜라' 및 '코카-콜라 제로'의 300ml 페트 '플랜트보틀(PlantBottle)'은 100%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PET수지의 약 30%가량을 식물성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탄소배출 감소를 유도하는 친환경 페트 용기입니다. PET의 주원료* 중, 30%를 차지하는 에틸렌글리콜(MEG)을 석유가 아닌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소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의 짜릿함을 그대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의 안전성은 물론, 내구성, 가벼움, 재활용 등 기존 페트 용기를 동일하게 구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페트 용기처럼 100%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플랜트보틀'은 2009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UN 기후변화협약(UN Climate Change Conference)'에서 처음 소개된 이래 이번 국내 출시를 포함,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감소 및 지구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만 해도 코카-콜라사의 '플랜트보틀' 출시로 인해 16만 배럴의 석유를 덜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63,02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1만 2,000여 대***의 자동차가 운행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코카-콜라사는 1969년부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 혁신적인 제품 개발은 물론,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환경에 대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용기인 '플랜트보틀(PlantBottle)'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시된 제품이며, 이번 국내 출시로 혁신적인 친환경 패키지 개발 선두기업으로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시장에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사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100% 식물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선보이며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 '플랜트보틀(PlantBottle)'은 코카-콜라사에서 환경을 생각하며 개발한 환경친화적 용기를 지칭하는 출원상표입니다.
- * PET의 주원료 : 70% - 고순도테레프탈산(PTA) & 30% - 에틸렌글리콜(MEG)
- ** 공동조사 - Prof. Ramani Narayan from Michigan Univ & Prof. Charles Liotta from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 US EPA CO2 emission



지역환경 개선활동

1사 1 하천 환경 정화 및 지역환경 파트너십 활동



코카-콜라는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환경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주공장은 공장 주변 점봉천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점봉천 주변에 버려진 페비닐, 담배꽂초, 페스티로폼, 휴지 등을 수거하며 지역환경 보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더불어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 신록사 주변, 황학산 주변의 등산로 일대에서 정화 작업 및 환경보호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공장은 광주 시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용산천 정화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양산공장은 공장밀집 지역에서 정화 활동을 실시, 각종 폐기물 불법 투기로 오염된 공업지구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NGO와 지속적인 환경 파트너십을 맺어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산공장은 환경실천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흑한기 야생 동물 먹이 주기 행사에 참여하여,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 증진, 생태계 균형 유지와 아울러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사 1 하천 환경정화 활동 참여 현황

구분	연도	참석 횟수	참석 인원	장소
여주	2009년	2	178	점봉천 / 남한강 신록사 주변
	2010년	3	149	
	2011년	2	57	
	계	7	384	
양산	2009년	14	83	양산천 / 천정산 내원사 계곡
	2010년	7	57	
	2011년	9	67	
	계	30	207	
광주	2009년	2	25	용산천
	2010년	3	89	
	2011년	2	75	
	계	7	189	



용어정의

TCCC(The Coca-Cola Company) 코카-콜라는 원액과 시럽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된 원액과 시럽은 코카-콜라의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전 세계의 보틀러에게 공급한다.

CCKC(Coca-Cola Korea Company) 한국 코카-콜라 유한회사의 약자로 원액 제조 및 상표 보호, 브랜드 프로모션을 담당한다.

CCB(Coca-Cola Beverage)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의 약자로 국내 코카-콜라 제품의 생산, 유통 및 고객지원 활동을 담당한다.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한국 코카-콜라(유)와 코카-콜라 음료(주)로 구성되어 있다.

KORE (Coca-Cola Operating Requirements) 코카-콜라 고유의 품질 시스템. 환경, 제품의 품질, 안전의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관리 기준을 가지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는 국제 규격인 ISO9001, ISO14001, OHSAS18001 등의 국제 기준의 요구 사항에도 부합된다.

RGB (Returnable Glass Bottle) 1회용 유리병이 아닌 회수하여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리병.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기업에서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기업소모성자재 또는 기업운용자재라고도 한다. 필기구부터 복사용지·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이 대표적이며, 청소용품과 각종 설비나 장비를 정비하는 데에 사용하는 공구·기계부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FBL(Finally filled Beverage Liter) 최종 생산된 음료제품을 부피(리터)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단위. 코카-콜라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Utility(물, 전기, 연료 등)의 효율적인 사용을 원단위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용수사용량(l/FBL)은 총 생산된 음료제품 1리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물의 양을 의미하며 전력사용량(FBL/kWh)은 1kWh를 사용하여 몇 리터의 제품을 생산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BAU(Business As Usual) 대비 방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를 말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이나 유가 등 객관적 경제 상황이 변동될 경우 배출 전망도 변할 수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업 또는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을 정량화한 목록.

탄소성적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여 주는 제도다.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저탄소제품인증 탄소배출량 인증 제품이 공정·연료효율 개선 등을 통해 이전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우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탄소성적표지, 저탄소제품인증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

공정배출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Eco-sumer 생태학적으로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Ecology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Consumer의 합성어로, 상품을 고를 때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Beverage Container Deposit System)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빈용기의 도소매 유통단계에서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고정배출원 보일러, 로, 버너, 터빈, 히터, 소각로, 엔진, Flare 등과 같은 고정 장비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로 열, 증기, 전력 등 생산에 의해 발생하는 배출원을 의미.

이동배출원 사업장 내에서의 이동 및 상품, 원료 운반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트럭, 버스, 기차, 비행기, 보트, 선박, 바지선, 항공기 등과 같은 수송 장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생산품의 출하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